

日本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에 관한 研究

李 鎬 靜 *

<목 차>	
第1章 序論	3.2 大型collection의 分析
1.1 머리말	第4章 主要大學에 대한 特殊collection의 調 査와 分析
1.2 先行研究	4.1 調査와 分析
1.3 研究對象과 方法	4.2 管理·運營上의 問題
1.4 本論의 構成	第5章 結論
第2章 特殊collection의 問題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特殊collection의 特徵
2.1 特殊collection의 定義와 範圍	參照文獻
2.2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收集方針과 特殊collection	附錄(1)主題別特殊文庫一覽 (2)主題別大型collection
第3章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의 分析	
3.1 既存의 데이터에 의한 特殊collection의 事前調査와 分析	

第1章 序 論

1.1 머리말

圖書館의 機能은 收集機能, 組織化機能, 保存機能, 提供機能의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大學圖書館에서는 지금까지 收集機能이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提供機能에 중점을 두어 閱覽·貸出서비스, 文獻複寫서비스는 물론 參考서비스에 의한 利用指導와 情報提供, 相互協力を 통해 自館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資料와 文獻도 比較的 간단하게 利用者에게 提供할수 있는 狀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大學圖書館에서는 종래와 같이 收集의 問題에 대하여 크게 論하여지지 않고 있지만, 大學圖書館의 收集機能은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가장 本質的인 것이며, 收集·藏書의 問題가 그 重要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일층 활발히 이루어질 圖書館協力네트워크시대에 있어서는 各圖書館이 각각의 獨自的인 藏書を 所藏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各 大學圖書館이 각각의 專門領域으로 特色있는 資料群을 形成하는 것이 圖書館 相互協力の 基礎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美國에서는 分擔收集의 議論이 활발하게 展開되어, 그 成果도 높아지고 있다. 日本에서도 雜誌分野의 全國·地域의 據點制度和 研究資料센터의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設立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相互協力の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各大學圖書館은 資料收集의 問題를 再檢討하여, 확실한 收集方針을 구축하고, 어느 한 研究分野에 있어서는 網羅的·徹底한 資料의 收集을 도모하고, 多樣하고 專門化된 藏書構成을 이루어 利用者의 要求에 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論에서는 大學圖書館의 藏書에 관한 問題를 생각해 보고, 그 獨自的인 領域의 하나인 特殊collection의 問題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特殊collection의 研究에 의해 大學圖書館藏書의 實態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으며, 大學圖書館 藏書의 問題에 있어서 全體像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提供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大學圖書館藏書의 問題를 全體的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 그 일부분인 特殊collection의 問題에 限定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大學圖書館 全體의 藏書問題를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研究를 基礎로하여 韓國의 大學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特殊collection 要覽을 만들어, 學生 및 教授, 研究者들에게 研究水準의 向上에 必要한 資料가 되기를 바라며, 韓國의 大學圖書館의 藏書 開發에 重要한 寄與를 하고 싶은 바램이다.

1.2 先行研究

特殊collection에 관한 研究는 지금까지 本格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分野로 部分的으로 論하고 있는 資料를 간단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一般的인 藏書構成論의 視點에서 紹介하고 있는 資料로서는 津金幹彦의 『圖書館資料의 構築』(1985)으로, 個人文庫의 收集과 整理의 章에 다소 상세하게 論하여져 있으며, 個人文庫一覽도 掲載하고 있다.

다음에, 書誌的인 視點에서 特殊collection을 다루고 있는 資料로서 細谷新治의 『나의 體驗的 書誌學』(1987)이 있으며, 細谷氏は 社會科學分野의 個人文庫를 檢討하여 社會科學의 日本에서의 受容을 問題로 하고 있다.

이외에, 美國에서 特殊collection에 대한 管理, 經營의 視點에서의 研究가 이루어진 資料로 Scham, A.M.의 『Managing special collections』(1986)가 있다.

끝으로, 研究論文은 아니지만 이 論文의 研究에 重要한 資料로서 『全國特殊collection要覽』(1977), 『全國圖書館案内 上·下·補遺』(1992), 『全國大學圖書館要覽』(1980), 『ふみくら-日本の 文庫案内』(1979)등이 있다.

1.3 研究對象과 方法

本 論文에서의 研究對象은 特殊collection에 限定하여 論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藏書의

問題全體를 다루기에는 너무 廣範圍하며, 一般論으로서 藏書構成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 著作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特殊collection에 관하여서는 國立國會圖書館, 大學圖書館, 專門圖書館, 公共圖書館의 館種如何를 不問하고 研究對象으로 해야 하겠지만, 本論文에서는 大學圖書館에 限定하여 論하고자 한다. 이것은 大學圖書館의 收集政策에 著者の 關心이 있다는 것과 特殊collection을 多量所藏하고 있는 館種이 大學圖書館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다음 研究方法으로는, 먼저 文獻을 통한 理論研究에 이어서 既存의 데이터를 收集하여 特殊collection의 事前調査와 分析을 行하였고, 그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大學圖書館 中에서 上位의 9개 大學을 選定하고 거기에 つくば大學을 포함시켜 合計10개 大學에 限定하여, 各 大學이 所藏하고 있는 特殊collection에 대한 새로운 調査와 分析을 실시하였다. 10개 大學가운데 7개 大學은 文獻調査뿐아니라 實地로 見學도 하였고, 그 結果를 바탕으로 日本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特殊collection을 全般的으로 考察해 보았다.

1. 4 本論의 構成

本論文은 크게 理論的 研究와 實態調査 및 分析의 2部門으로 나눌수 있으며, 전체 第5章으로 構成되어져 있다.

第2章 特殊collection의 問題

本章에서는,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論에서 본 特殊collection의 問題를 다루고 있으며, 大學圖書館의 藏書의 問題와 特殊collection과의 關係에 대하여 敘述하고 있다.

2.1 特殊collection의 定義와 範圍

大學圖書館은 大學에서의 敎育과 研究에 必要한 다양한 資料를 收集, 組織하여 學生과 研究者에게 提供하여, 그들의 學習과 研究를 援助하는 使命을 가지고 있다. 특히, 特殊collection은 貴重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資料群으로서, 學術·文化의 發展에 貢獻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重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特殊collection이란 무엇인가, 먼저 特殊collection의 定義와 範圍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特殊collection이란 用語가 지금과 같이 쓰여지게 된 것은 國立國會圖書館이 1957년에 『全國 特殊collection要覽』을 刊行한 以後로, 같은 意味로서 特殊文庫라는 用語도 사용되었다. 特殊文庫라고 하는 用語에서 文庫는 애매모호하며, 『圖書館ハンドブック』에서

는 제4판부터 文庫 대신에 collection으로 訂正하고 있다. 그러나, 特殊라고 하는 단어도 무엇이 特殊한지 정확하지 못하며, 再檢討의 소지가 있는 用語라고 할 수 있다.

『全國 特殊collection要覽』에는, 特殊collection의 概念에 관한 명확한 定義가 내려져 있지 않았지만, 「凡例」에 다음의 4가지로 性格을 集約하고 있다.

1. 貴重書로서 整理되어져 있는 集書 ; 貴重書일 것
2. 어떤 主題 또는 形式아래 整理되어져 있는 集書로 상당한 分量을 가지고 있는 것.

즉, 選定的, 專門的 集書, 特殊한(圖書) 資料의 集書 ; 意圖的·專門的인 選擇, 收集된 一群의 資料일 것.

3. 郷土資料 ; 郷土에 관한 資料일 것.
4. 寄贈(寄託)者, 社會的人物을 記念한 文庫일 것.

凡例에서는, 4가지중 1項目에만 該當하는 資料라도 特殊collection으로 다루고 있다.

Harrod의 『圖書館員用語集』(Harrod's Librarians' Glossary, 8thed., 1995)을 보면, 「A collection of books connected with local history, celebrities, industries, etc., or on a certain subject or period, or gathered for some particular reason, in a library which is general in character.」(一般的인 性格의 圖書館에서, 어떤 일정의 主題나 時代, 또는 어떤 特別한 理由로 收集된 地域史, 地方의 名士, 産業 등에 關係하는 資料)

이 定義에서는 特殊collection에 관한 一定의 理解는 얻을수가 있지만, 너무나 簡潔하여 定義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할수 가 있다.

이외에, 『圖書館用語 辭典』(1982)과 『圖書館ハンドブック第5版』(1990)에서도 特殊collection全體로서의 定義와 그 範圍를 살펴보았지만, 각각의 定義는 一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위의 定義에서 본것과 같이, 特殊collection은 여러 範疇를 集합한 것으로, 積極的으로 一律的인 定義를 내리기가 困難하였다. 한편, 劃一的인 定義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各大學圖書館의 目的, 規模, 性格, 또는 여러 가지의 條件등으로 인하여 特殊collection의 基準이 달라, 明確히 特殊collection의 定義와 範圍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으나, 本論에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렸다.

定義: 特殊collection이란, 圖書館의 一般藏書와는 다른 취급을 요구하는 獨子性을 가진 資料群으로서 資料價値가 높은 자료를 말한다.

範圍: 特殊collection의 범위에 들어가는 資料群은 크게 세분야로 나눌수 있다.

- (1) 藏書形成에 있어서 特徵이 있고, 獨自的인 價値가 있는 資料. 個人과 團體의 收集에 의한 個人文庫

(2) 專門主題, 人物, 地域, 時代에 따라 特定화된 特定主題의 資料群으로, 專門的인 價値가 있는 資料

(3) 特殊形態의 資料群으로, 專門的인 價値가 있는 資料

上の 定義에서 注意해야할 것은, 特殊collection과 貴重書を 別途의 概念으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貴重書는 別個의 基準에 適用하여 定義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特殊collection의 範圍는 各大學圖書館에 의해 決定되어져 반드시 實際적으로 一律적이지 않다는 것도 注意하지않으면 안된다.

本論에서는 特殊collection의 範圍를 上記의 定義와같이 넓게 다루어, 專門적으로 選擇된 一群의 獨自性을 가진 資料群으로서의 觀點에서 特殊collection을 調査, 分析하였다. 實際, 大學圖書館에서의 特殊collection은 그 專門的인 價値로부터 藏書의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2. 2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 · 收集方針과 特殊collection

2. 2. 1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

「藏書構成」이라는 用語는 英語의 collection building의 譯語로, collection building은 英美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日本에서는 昭和8年(1933)에 中田邦造氏가 처음으로 사용하여, 널리 보급시킨 概念이다.

英美의 圖書館에서는, 「book selection」에서부터 「collection building」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collection development」와 「collection management」라고도 말하고 있다. 1983年刊行의 ALA Glossary를 보면, collection development가 실려, collection building은 없어진 것처럼, 지금 美國에서는 collection development가 一般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河井氏가 『藏書構成と圖書選擇』에서 藏書構成의 基本概念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機械적으로 收入하는 과정의 意味로 「受入れ」, 「收書」, 「收集」, 「購入」 등이 있고, 또 하나는 圖書資料의 適否를 判斷하면서 受入하는 意味의 概念으로 「圖書選擇」, 「選書」, 「藏書構成」, 「藏書構築」 등이 있다고 定義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圖書館의 藏書論에 대하여 論할 때 藏書構成의 가장 基本的인 要因이 되는 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은 圖書館의 館種別로, 制度的으로 制定된 것으로, 本論에서는 大學圖書館의 目的과 機能만을 살펴보았다. 藏書構成에 대하여 가장 一般的으로 論하고 있는 河

井氏の理論을 引用하 하면, 「大學圖書館은, 大學에 의해 設置되어, 大學構成員(學生, 敎職員 등)의 敎育活動에 도우이 되는 資料를갖추고, 한편으로는 知識을 고도의 專門的인 資料의 形態로 保存하여, 學外로부터의 要望에도 응할수 있는 責任을 가진 社會的機關이다.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은 綜合大學과 單科大學, 中央圖書館과 部局圖書館과는 크게 다르게 되어 있다.

主題別로 보면, 綜合大學의 中央圖書館에서는 全分野의 資料가 넓게 所藏되어 있지만, 普通醫學關係의 專門的인 資料와 除外되어 있다. 單科大學에서는, 一般敎養科目關係를 除外한 그 大學의 專攻分野가 中心이 되며, 部局圖書館에서도 그 部局의 專攻分野의 資料가 中心이 된다.

資料의 類型別로는 敎養書부터 고도의 專門的資料까지 여러 段階로 나눌수 있으며, 大學圖書館에서는 外國語資料의 比重이 큰 것이 特徵이다. 『日本の 圖書館1989』에 의하면, 外國語의 圖書冊數의 比率이, 大學圖書館의 全體冊數의 36%에 달하고 있다.

形態面에서는, 文科系와 理科系가 완전히 다른 藏書構成을 하고 있다. 文科系에서는, 單行圖書가 中心이며, 理科系에서는 學術雜誌, 外國雜誌가 대부분으로 總豫算의 80%以上이 外國雜誌에 充當되어진 例도 있다. 그외에, 마이크로 資料, 機械可讀資料 등의 重要性도 점차 커지고 있다.」

日本の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의 實態는 以上에서 敍述한 內容으로 理解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大學圖書館의 理想的인 藏書構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시한번 河井氏의 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學生·敎職員의 學習·敎育·研究用的 學術書, 研究書, 研究資料, 雜誌 등
- b 學生의 人格形成에 도움이 되는 敎養書 등
- c 學內·學外에서의 參考業務에 도움이 되는 參考圖書
- d 專門分野의 特殊collection
- e 大學의 刊行物, 關係資料

다음으로, 藤田氏는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의 問題를 大學圖書館에서의 選擇의 對象이 되는 圖書館資料와의 觀點에서 考察하고 있어 이것을 살펴보았다.

- ① 基本參考圖書, 二次資料
- ② 學生을 위한 學習用圖書, 一般敎養書(基本圖書, 指定圖書 등)
- ③ 各專門分野의 基本的, 標準的資料

- ④ 어떤 專門分野에 共通으로 利用되는 資料
- ⑤ 專門分野의 中間領域, 境界領域의 資料
- ⑥ 그 大學에 必要한 分野의 資料

이것을 河井氏와 比較해보면, ①은 c에 해당하고, ②는 a의 일부와 b에, ⑥은 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에 대하여 高橋氏는, 大學이 教養課程. 專門課程, 大學院課程의 세 課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資料의 깊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1) 普通圖書 ①學習用圖書
 ②一般教養圖書
- (2) 專門圖書
 專門課程의 教科 學習에 필요한 圖書
- (3) 上級專門圖書
 大學院課程의 教科 學習, 研究에 필요한 圖書

以上,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論을 살펴본 結果,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研究·教育의 機能에 對 應하여 對象과 機能·用途, 資料의 形態등 多様な 範疇의 資料를 포함하고 있으며, 研究分野의 展開와 藏書의 質的인 깊이 등과 關聯되어 있다. 그리고, 藏書構成論도 論者에 따라 그 理論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 2 藏書構成論과 特殊collection

2. 2. 1에서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을 問題로 했지만, 本節에서는 藏書構成論과 特殊collection의 關係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藏書構成과 特殊collection의 關係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식하여 論하고 있는 論文은 全無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여기서, 岩猿氏가 特殊collection을 藏書構成과의 關係에서 論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檢討해 보았다. 岩猿氏에 의하면, 大學圖書館의 資料는 大學圖書館의 機能에 따라 範疇가 정해지며, 特殊collection은 그중에서 文化機能에 該當하는 資料群으로서 位置가 정해져 있다.

岩猿氏는 大學圖書館資料의 種類를 大學圖書館이 수행해야하는 機能別로 나누고 있으며, 大學圖書館이 가져야 할 機能으로서,

- (1) 먼저, 學生의 學習活動 및 教師의 教育活動에 서어비스하는 學習의 機能,

- (2)院生, 敎師의 研究活動에 서어비스하는 研究的機能,
- (3)敎育, 研究活動을 통하여 필요로하는 情報要求에 응하기 위한 refernce 機能,
- (4)大學圖書館의 第4의 機能으로서 文化的機能

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大學圖書館의 資料는 이러한 4가지의 機能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文化的機能이라고 하는 것은 大學圖書館이 文化遺産을 所持, 保存하는 機關으로서의 國民에게 대한 責任이며 義務인 것을 말한다. 즉, 大學圖書館은 國民의 文化的創造를 支援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위해서는 人類文化的 遺産으로서의 圖書資料를 保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藏書를 일컬어 大學圖書館의 文化的機能을 위한 藏書라고 말하고 있다.

藏書構成論과 特殊collection의 關係를 생각하는 경우, 藏書의 깊이 또는 質的인 觀點에 더욱 注視하는 것이 좋다. 岩猿氏는 藏書의 質的 問題에 관하여, Danton의 收集上의 5段階를 紹介 하고 있다.

「...最低의 段階가 minimal collection으로, 가장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情報만이 收集 된다. 다음으로 working colleciton으로, 적어도 大學院生과 敎官의 豫備的인 調査를 支援해 줄 수 있는 段階의 收集이다. 第3이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으로, 이 收集段階에서 부터는 本格的으로 研究를 지지해줄수 있다. 第4가 으로, 이 段階에서는 많은 研究를 지지해 줄 뿐만아니라 國內에서의 우수한 集書의 하나로 될 수 있는 藏書이다. 最後의 段階는 turecompleteness으로서 研究價値가 있는 資料라면 무엇이든지 收集하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이라면, 博士課程을 가진 分野에 있어서는 적어도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에도달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게다가 몇 개의 分野에서는 comprehensive collection의 段階를 目標로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第4段階의 comprehensive collection, 第5段階의 ture completeness야 말로 特殊collection의 收集段階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實際로, 1979年 의 A.L.A.資源·技術業務部門의 藏書構築委員會 RTSD(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 Division. Collection Development Committee)의 「收集方針成文化的 가이드 라인」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에서도 藏書의 깊이와 收集度의 수준에 대하여

- ①網羅的 수준 comprehensive level
- ②研究·調査 수준 research level

- ③學習 수준 study level (1)上級學習 수준 advanced study level
(2)初級學習 수준 initial study level

④基礎 수준 basic level

⑤最低限 수준 minimal level

을 設定하고 있다. 그리고, ①의 網羅的수준에는 「special collection」가 포함되어 있다.

2. 2. 3 大學圖書館의 收集方針

本節에서는 Gardner가 제시한 收集方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Gardner는 館種을 불문하고 全圖書館에 共通되는 收集方針에 대하여 9가지 項目을 들고 있으며, 그것을 要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序 이 方針은 누구에 의해 왜 成文化되었는가 및 서어비스 對象에 대하여 敘述함
2. 目標 圖書館 및 大學의 目的
3. 選書方針(selection statement) 方針中에서 가장 中心的인 事項으로, 資料의 選擇者, 選擇法, 選擇할때의 基準 및 選擇을 위한 道具, 選擇의 깊이, 豫算的 制約에 관한 事項
4. 問題領域 複本, 汚損과 紛失, 資料의 代替, 製本, 리쿠에스트의 處理, 教科書를 갖출 것인가 말 것인가
5. 圖書이외의 資料 여기서는 雜誌, 新聞, 寫本, 마이크로資料, 視聽覺資料, 거기에다 뉴미디어 關係資料 등의 取扱
6. 寄贈書 寄贈書에 대해서도 購入資料와 마찬가지로 選擇基準을 適用하는 것이 原則이다
7. 廢棄 廢棄해야 할 資料 및 方法, 廢棄資料의 處置
8. 知的自由 知的自由에 관한 公的인 組織의 宣言을 引用해야 할 뿐 아니라, 問題가 發生했을 경우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특히 圖書館에 所藏資料가 個人과 團體에 의한 抗議의 對象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9. 改訂 方針을 最新의 것으로 維持할 것, 改訂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 의해 행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것. 方針은 必要에 따라 再檢討하여 改訂해야만 하며, 적어도 每年 再檢討해야 한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收集方針의 具體的인 例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위해 圖書館情報大學 圖書館의 收集方針을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1. 目的

本學의 附屬圖書館은, 本學이 圖書館情報學의 教育 및 研究에 관한 國內의 唯一한 專門大學으로 設置된 圖書館이기 때문에, 本學의 設置目的達成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圖書館資料收集의 基本方針을 정하고 있다

2. 收集方針

收集의 方針은 아래의 項目과 같으며, 收集하는 資料의 種類는 모든 情報媒體(圖書·小冊子, 逐次刊行物, 마이크로資料, AV 資料, 磁氣테이프, 展示資料등)을 對象으로 한다.

2. 1. 基礎的 情報 資料

모든 學問領域에 이르는 基礎知識과 豊富한 教養을 培養하기 위해, 폭넓게 基礎的인 資料를 收集한다.

ア. 學問의 各領域에 있어서 入門, 教養書의 基礎的인 것

イ. 各各의 主題領域에 있어서 研究入門, 研究必携 등

ウ. 文獻의 記錄記號·文字에 관한 것

2. 2. 圖書館情報學關係情報資料

本學의 專門領域으로, 本學藏書의 核心이 되는 資料이다. 따라서, 全國의 資料센터로서의 機能과 歷史的, 體系的인 收集을 圖謀하고, 또한 世界的으로 最新의 成果 및 動向을 파악할 수 있도록 留意하며, 이 分野에 있어서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役割도 達成하기 위한 것이다.

ア. 圖書館情報學의 全分野에 있어서의 基礎的, 體系的인 것

イ. 이 分野의 法令, 基準, 規格, 調查報告, 統計데이터, 테크니칼 레포터, 매뉴얼 등

ウ. 圖書館情報學 教育에 관한 것

エ. 學位論文등

オ. 會議資料등

カ. 圖書館·情報센터 등의 刊行物

2. 3. 參考圖書資料

圖書館의 業務를 위한 情報提供의 基本的인 TOOL로서, 學生과 現職者 教育을 위한 實習, 演習에 없으서는 안될 資料로서, 全分野에 있어서 收集을 도모한다.

ア. 百科事典

イ. 言語辭典

ウ. 人名事典

エ. 各專門分野의 基礎的事典, 便覽, 핸드북 등

オ. 모든 分野의 基礎的年鑑, 年表 등

カ. 書誌, 書目類, 索引, 抄錄 등

2. 4. 本學의 教育·研究의 展開에 直接關係하는 情報資料

커리큘럼과의 關聯, 研究·調査테마등과의 密接한 關聯을 가지는 資料에 있어서의 收集을 도모하고, 本學의 敎官 등의 業績도 收集한다.

ア. 커리큘럼의 展開에 直接關係하는 敎科書, 入門書, 概說書

イ. 指定圖書

ウ. 敎育用, 實習·演習用을 위한 資料

エ. 大學院의 研究에 필요한 것

オ. 敎官의 研究에 필요한 것

3. 選定組織

資料의 選定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해, 「資料選定委員會」를 둔다. 委員會의 構成, 機能 등은 다음과 같다.

(構成等)

委員會는, 敎官4名(圖書館學關係1名, 情報學關係1名, 基礎學藝關係文科系, 理科系 各1名), 事務官4名(圖書館情報課)으로 構成한다.

委員은 附屬圖書館委員會에서 選出한다.

委員長은, 必要에 응하여 委員會를 召集한다.

(機能)

ア. 該當年度의 收集方針의 策定(雜誌, 高額圖書, 大型collection)

イ. 藏書構成에 관한 分析, 評價 등

ウ. 기타

圖書館情報大學의 收集方針은 簡潔하지만,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實際로 日本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도 收集方針에 대한 成文化의 問題가 現時點에서 明確히 結論을 내릴만큼 데이터를 所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以上の 考察로 마치고 以後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2. 2. 4 收集方針과 特殊collection

前節에서, 收集方針을 가지고 있는 日本의 大學圖書館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고 서술하

였다. 설령 收集方針을 가진 大學圖書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收集方針 中에 特殊 collection에 관한 規定을 세우고 있는 大學圖書館은 확실히 없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收集方針을 가지고 있는 美國의 大學圖書館中에서 特殊 collection에 관한 規定의 例를 보여주고 있는 圖書館이 적지않게 있었다. Elizabeth Futas編의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에는 10개 大學의 收集方針의 例가 掲載되어 있으며, 收集對象가운데 特殊collection을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University of Wisconsin Library Learning Center, University of Detroit Library (단, 逐次刊行物の 部門內에 있음), College of St. Catherine. Catherrine Library, William Paterson College of New Jersey. Sarah Byrd Askew Library의 4개 大學 圖書館이 있다.

가장 큰 現實問題로서, 日本의 大學圖書館에서는 一般的인 收集方針의 成文化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은 狀況이기 때문에 特殊collection의 個別적인 收集方針을 세운다는 것은 이루어 없는 일이다. 美國의 大學圖書館에서도, 一般的인 收集方針은 가지고 있어도 特殊 collection 獨自의 收集方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15萬冊의 特殊 collection을 가지고 있는 프 린스톤大學의 貴重書課와 워싱턴大學, 아이오와州立大學, 스탠포드大學 등에서는 特殊collection을 위한 收集方針을 가지고 있다.

A.M.Scham은, 特殊collection을 위한 收集方針에서는 우선 目標을 정하고 난다음 優先 順位の 序列을 確立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고 있다. A.M.Scham은 有效한 目標에 대하여 다음의 項目으로 要約하고 있다.

- 「1. 部門의 收集 範圍內에 들어가는 collection, 著作, 資料의 寄贈을 勸奨할 것.
2. 될 수 있는한 많은 collection 예산의 入要를 지원하는 寄附金을 獎勵하고 確立할 것.
3. 다음으로 主要分野의 資料를 收集하고, 그것을 保證하는 條件下에 있는 다른 分野로의 將來의 擴張을 考慮할 것.
4. 部の collection과 活動에 關係하는 出版物을 適切하게 有用하다고 생각할 경우 만들 것.
5. 展示, 貸出, 複寫와 마이크로 필름, 講演과 세미나를 통하여(또는 될 수있으면 會員制를 導入하여) 部の collection의 研究와 利用을 獎勵할 것.
6. 기타 特殊collection과의 交換關係를 만들 것. 」

다음으로, A.M.Scham은 優先順位の 序列을 정하고 있으며, 優先順位에 관하여 가장

잘 成文化된 것으로 시카고의 뉴벨리 圖書館을 들고 있다. 뉴벨리 圖書館의 優先順位는 以下の 例示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主題로, 뉴벨리圖書館은 研究目的의 決定的인 collection의 維持를 圖謀한다.

- A. 印刷, 活版印刷, 書體의 歷史
- B. 아메리카·인디언의 歷史, 發見과 探險, 關聯分野
- C. 音樂史, 研究目的의 音樂書와 樂譜를 포함하지만, 音聲記錄物은 포함하지않는다.
- D. 포르투카르 및 히브라이어 研究
- E. 西部아메리카史
- F. 특히, 이탈리아·르네상스, 圖書館 및 書誌의 歷史, 家族史 및 紋章學, 아더왕 傳說研究誌, 儀禮書, 地圖製作史, 歷史文獻學, 필리핀, 유토피아, 旅行·航海」

以上과 같이, 特殊collection에 있어서도 收集方針을 정하여, 優先順位の 序列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本章에서는,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과 特殊collection의 關係, 그리고 收集方針과 特殊collection의 關係를 論하였다. 오늘날에서 있어서 大學圖書館이, 모든 資料를 網羅적으로 所藏 한다는 것은 現實不可能한 일이지만, 大學圖書館의 協力關係는 지금보다 훨씬 더 發展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協力關係 또는 네트워크의 形成은 오늘날 過去에서는 볼수 없었던 技術의 發展으로 인하여 可能하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各各의 大學圖書館은 自館에 적합한 特色있는 主題分野의 藏書を 形成할 必要가 있으며, 그러한 藏書의 核心이 되는 主題分野를 정하여 特殊collection을 形成하는 것이 大學圖書館의 중요한 役割이 아닐까 생각한다.

第3章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의 分析-事前調査

本章과 次章에서는, 日本의 大學圖書館에 있는 特殊collection을 分析하였다. 이러한 特殊collection의 分析에 앞서 本章에서 먼저 事前調査를 實施하였다. 이것은, 日本의 大學圖書館에서는 어느정도의 特殊collection을 保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既存의 데이터를 使用한 網羅적인 調査이다. 이 調査의 結果를 바탕으로 分析한 結果, 少數의 大學이 所藏하고 있는 特殊collection이 全體의 特殊collection중에서 상당히 높은 保有率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를 기본으로하여 次章에서는 特殊collection을 所藏하고 있는 大學圖書館 중에서 上位의 大學에 限定하여 새로운 調査를 실시하고 그것을 分析하여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特殊collection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調査는 網羅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앙케이트 調査를 實施한다고해도 이런 種類의 調査에는 技術的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日本의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에 基礎를 둔 網羅的인 分析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언급해 둔다. 즉, 主要大學에 限定시켜 特殊collection을 分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特殊collection의 分析에 있어서 큰 問題點에 直面하고 있는데, 그것은 昭和53年度부터 文部省에 의해 豫算화된 國立大學의 大型collection의 존재로, 일단 本論에서는 特殊collection과 大型collection을 別個로 다루기로 하였다.

3. 1 既存의 데이터에 의한 特殊collection의 事前調査와 分析

特殊collection에 관한 데이터를 提供해주고 있는 資料로서는, ①國立國會圖書館編『全國特殊collecton要覽』改訂版(1977), ②日本學術振興會編『全國大學圖書館要覽』(1980), ③津金幹彦著『圖書館資料의 構築』(1985)에 收錄되어 있는 「個人文庫一覽」, ④書誌研究懇話會編『全國圖書館案内 上·下·補遺』(1992)가 있다.

①은 가장 網羅的인 資料이기는 하지만, 收錄數가 不完全하여 基礎的인 資料로서 使用하기가 어려우며, ②는 少數의 特殊collection만 記載되어있어 網羅的인 資料라고 볼 수 없다. ④는 特殊collection의 內容을 記載하고 있다는 점은 有益하나, 이것도 網羅的이며 完璧한 資料라고는 볼 수 없다. 網羅的인 面에 있어서는 ③이 가장 有效하며, ③의 資料를 基礎로 大學別 特殊collection 所藏狀況을 統計로 나타내 보면 表1.과 같다.

표1. 特殊collection 所藏 國公立·私立別 上位大學(5以上所藏)

国公立大学	文庫數	私立大学	文庫數
1. 京都大学	4 9	1. 天理大学	1 5 0
2. 東京大学	4 6	2. 慶応義塾大学	2 6
3. 一橋大学	4 1	3. 早稲田大学	2 0
4. 東北大学	3 5	4. 東海大学	1 3
5. 九州大学	2 3	法政大学	1 3
大阪大学	2 3	6. 同志社大学	1 2
7. 神戸大学	2 1	7. 駒沢大学	1 1
8. 北海道大学	1 9	8. 玉川大学	1 0
9. 広島大学	1 3	関西大学	1 0

10. 岡山大学	1 0	10. 國學院大学	9
11. 名古屋大学	9	大谷大学	9
12. 小樽商科大学	8	関西学院大学	9
弘前大学	8	13. 東洋大学	8
東京芸術大学	8	明治大学	8
金沢大学	8	15. 拓殖大学	7
16. 山形大学	6	東京農業大学	7
筑波大学	6	立正大学	7
東京水産大学	6	松山商科大学	7
東京都立大学	6	19. 専修大学	6
大阪市立大学	6	昭和女子大学	6
高知大学	6	中央大学	6
熊本大学	6	日本大学	6
鹿児島大学	6	愛知学院大学	6
琉球大学	6	大阪経済大学	6
25. 東京外国語大学	5	25. 上智大学	5
新潟大学	5	成城大学	5
和歌山大学	5	高野山大学	5
	3 9 0 (84.7%)	(小計)	3 8 7 (76.9%)
その他39大学	7 0	その他60大学	1 1 6
合計	4 6 0		5 0 3

(出所) 津金幹彦著『圖書館資料의 構築』東海大學出版會, 1985. 「個人文庫一覽」에서 作成

표.1의 결과, 日本의 大學圖書館은 153개 大學으로 總計963종의 特殊collection을 所藏하고 있다. 內譯은 國公立大學 460, 私立大學 503이다. 昭和56년도의 大學數는 國立大學93, 公立大學34, 私立大學319校로, 合計446校이다. 표1.을 보면 大學間 特殊collection의 格差가 현저하게 特定大學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天理大學圖書館은 150의 文庫를 所藏하고 있어, 全體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3. 1. 1. 大學圖書館의 藏書量 全體와 特殊collection

現在 日本의 大學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數에 관해서는 文部省의 『大學圖書館實態調査 結果報告』(1995年度)에 의하면, 大學의 數는 552大學이고, 藏書總數는 약표

20,114萬冊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上記 特殊collection 調査時의 1981年度의 藏書數는 약 11,317萬冊으로 약 半數이다.

아래의 표2. 는 1981年度 日本의 大學圖書館의 上位藏書大學의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표2. 藏書數 上位의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藏書上位리스트(1981.5.1現在, 『圖書館年學鑑1994』에서)

大學別	單位千冊	大學別	單位千冊
1. 東京大學	4,920	26. 近畿大學	853
2. 京都大學	3,888	27. 鹿兒島大學	744
3. 日本大學	2,456	28. 熊本大學	743
4. 九州大學	2,255	29. 新寫大學	737
5. 早稻田大學	2,232	30. 千葉大學	727
6. 東北大學	2,206	31. 東海大學	691
7. 北海道大學	2,033	32. 信州大學	663
8. 神戶大學	1,787	33. 大阪府大立學	655
9. 廣島大學	1,762	34. 龍谷大學	650
10. 大阪大學	1,702	35. 東京都立大學	644
11. 名古屋大學	1,588	36. 橫兵國立大學	642
12. 慶應義塾大學	1,568	37. 福岡大學	637
13. 大阪市立大學	1,354	38. 山形大學	614
14. 天理大學	1,292	39. 東京學藝大學	605
15. 一橋大學	1,258	40. 長崎大學	600
16. つくば大學	1,177	41. 立教大學	584
17. 岡山大學	1,084	42. 學習院大學	576
18. 關西大學	1,062	43. 靜岡大學	565
19. 中央大學	962	44. 愛媛大學	560
20. 金澤大學	928	45. 國學院大學	556
21. 同志社大學	927	46. 岐阜大學	525
22. 明治大學	898	47. 東洋大學	514
23. 山口大學	889	48. 青山學院大學	511
24. 立命館大學	889	49. 關西學院大學	511
25. 法政大學	888	50. 玉川大學	506

표1.과 표2.을 비교해보면, 藏書量이 많은 大學이 特殊collection도 많이 保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特殊collection과 藏書量과의 對應關係를 나타내보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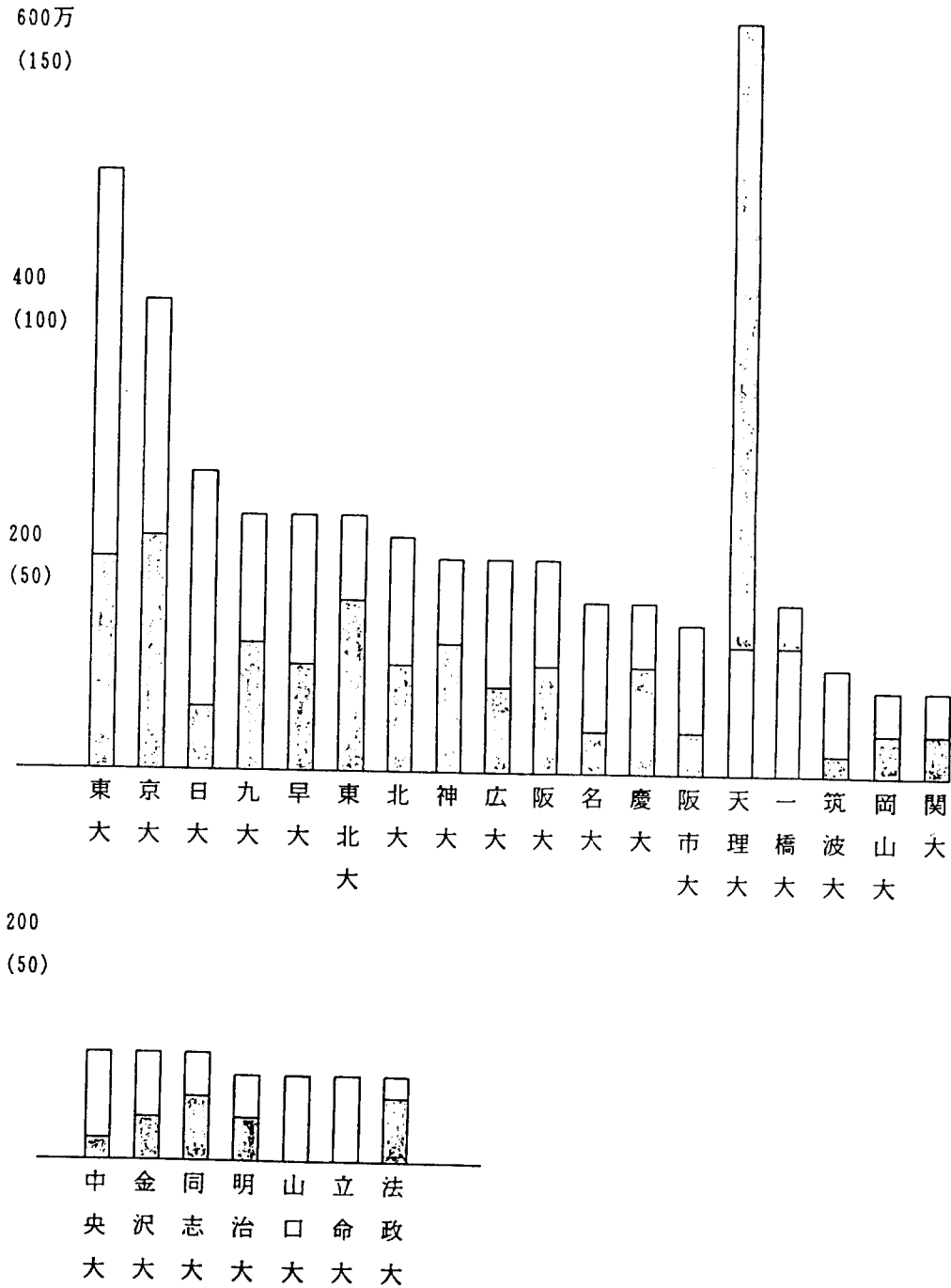


그림1. 特殊collection과 藏書量의 對應關係圖

그림1. 을보면, 正確한 比例關係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特殊collection 數와 藏書量과 어느정도 比例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藏書量에 비하여 特殊collection 數가 많은 大學으로는 天理大學과 一橋藏大學이다. 그밖에도 東北大가 35, 慶應義塾대가 26으로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藏書量에 비하여 特殊collection 數가 적은 大學으로는 日本대가 6, 立命館대가 3으로 나타나고 있다.

結果的으로, 一般的으로 藏書를 많이 所藏하고 있는 大學 또는 傳統的으로 오랜 歷史를 지닌 大學이 特殊collection을 많이 保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1. 2. 主題分析

本節(3. 1)의 事前調査에 있어서 對象으로 한 963種의 個人文庫의 一般的인 傾向을 把握하기 위해 다음은 主題分析을 실시하였다. 물론, 特殊collection에는 1萬冊이상의 것도 있지만, 500冊 정도의 것도 있으며, 主題에 있어서도 單獨主題로 構成되어진 것과 複數의 主題에 걸쳐져 있는것이 있다. 먼저, 本節에서는 主題分野의 分析에 主眼을 두고 지금까지 어떤 分野에서 特殊 collection이 形成되어 왔는가에 대한 概觀을 把握해 보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特殊collection은 人文·社會科學의 主題分野에 集中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分析의 結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3는 特殊collection의 主題分野에 관한 分布狀況을 표시한 것이다.

표3. 은 事前調査에서 對象으로 한 963種의 個人文庫의 一般的인 傾向을 파악하기 위해 主題 分析을 하여, 그 結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特殊collection은 人文科學·社會科學을 主題로 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表4. 는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各分野別로 살펴보면, 人文科學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藝術을 포함하면 42%나 된다. 社會科學은 24%를 차지, 거기에 産業을 포함하면 約30%에 달한다. 게다가, 歷史는 人文科學·社會科學의 兩面에 해당, 14%나 되며, 이것을 綜合해보면 人文科學·社會科學이 全體의 85%에나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외, 나머지 15%는, 總記가 7%, 自然科學이 8%를 차지하고 있다.

個別分野의 細目에 대해서도 分析을 하였지만, 紙面關係上 省略하기로 하고 附表를 참고로 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3. 主題別 特殊collection數와 主題別 構成比

	单独	複合 (調整値*)	調整總數	構成比
一般書	45	43 (20)	65	7%
人文科学	259	243 (111)	370	38%
一般	38	30 (14)	52	(5)
哲学	28	53 (24)	52	(5)
宗教	56	43 (20)	76	(8)
言語・言語学	16	25 (11)	27	(3)
文学	121	92 (42)	163	(17)
歴史	92	84 (39)	131	14%
社会科学	158	169 (77)	235	24%
一般	22	25 (11)	33	(3)
法学	51	44 (20)	71	(7)
経済学	48	55 (25)	73	(8)
社会学他	37	45 (21)	58	(6)
産業	30	31 (14)	44	5%
自然科学	34	32 (15)	49	5%
医学	18	19 (9)	27	3%
芸術他	24	40 (18)	42	4%
計	660	661 (303)	963	100%

*調整値とは、複合主題661コレクション數が實際は303のコレクションを形成することから、複合主題コレクション數に係數0.458(單純平均値)を掛けて、調整した數である。

以上, 本節에서는 어떤 主題分野에서 特殊collection이 形成되어 왔는지, 또 特殊collection은 어떠한 主題에 集中되어 있는지 등을 指摘해 보았다. 이러한 分析의 結果로 人文科學, 社會科學, 歷史의 部門을 中心으로하여 지금까지 多數의 特殊collection이 形成되어져 왔다는 것을 實際적으로 理解할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표4는 上記에서 제시한 主要文庫의 大學別 集計結果를 나타낸 것이다.

표4. 大學別 主要文庫의 主題別分布狀況

	總記	人文 科学	歴史	社会 科学	産業	自然科学 医学	その他	計
東大	3	1 2	4	8		7	1	3 4
京大	6	8	5	9		1	2	3 1
東北大	1	5		5		6	1	1 8
慶応大	2	9	2	1		2	1	1 7
一橋大		4		9				1 3
早大	2	3	1	3	1	1	1	1 2
天理大	1	7	2				1	1 0
九大		6	2			1		9
阪大		2		5		1		8
神大	1	2	1	2	1		1	8
法政大		5	1	1	1			8
関西大		3	1	3				7
同志社大	2	1	1	2				6
大阪市大	1	2	3					6
関学大		4	2					6
広島大	1	1	2	1	1			6

表.4의 分析結果, 天理大學은 별도로, 順位의 移動도 多少 있지만, 앞의 표1.에서 본 바와같이 特殊collection의 所藏數리스트에 거의 比例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단, 法政大學의 경우는 표4.에서의 順位가 크게 올라가 있다.

以上, 特殊collection을 많이 所藏하고 있는 大學은 표1. 및 표4. 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3. 2 大型collection의 分析

文部省은 昭和53年度부터 값이 비싸 入手가 困難했던 人文·社會科學分野의 資料를 全

國共同利用을 목적으로 하여, 資料費를 豫算化하고, 이것으로 多數의 大學이 從來에는 入手不可能이라고 생각했던 資料를 學内外의 研究者의 共同利用에 提供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入手된 資料를 일컬어 大型collection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의 大型collection은 全國적으로 443件이 되었고, 各國立大學의 特色있는 圖書資料의 中心的 存在가 되었다.

第4章 主要大學에 대한 特殊collection의 調査와 分析

第3章에서는 既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網羅的인 事前調査를 실시하였다. 그 調査結果를 基本으로하여 第4章에서는, 特殊collection을 所藏하고 있는 大學圖書館가운데 上位 大學에 限定시켜, 새로운 調査를 實施하고, 그 分析에 따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特殊collection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하였다. 具體的으로는, 10개 大學圖書館을 例로 들어 特殊collection의 內容分析을 實施하고, 內容分析에 의해 特殊collection의 性格을 把握하고자 하였다.

10개 大學으로는, 特殊collection의 數가 많은 上位의9개 大學과 範波大學으로 選定하였다. 特殊collection의 調査 項目으로는, (1) 文庫名, (2) 舊藏者, (3) 收藏年月日, (4) 主題內容, (5) 冊數, (6) 目錄의 有無 等이다. 새로 調査한 데이터에는 未詳의 部分이 남아 있어 完全하지는 않지만 集藏年月日과 內容, 冊數, 目錄의 有無 등, 오리지날(독창적인) 데이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各大學別의 分析에서는, (1) 特殊collection의 形成史, (2) 主題範圍, (3) 特筆해야할 特殊collection의 解説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分析에 있어서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은 文獻을 참조하여 分析하였다.

4. 1 調査와 分析

- (1) 天理大學
- (2) 東京大學
- (3) 京都大學
- (4) 一橋大學
- (5) 東北大學
- (6) 慶應義塾大學
- (7) 九州大學

- (8) 早稲田大學
- (9) 大阪大學
- (10) つくば大學

以上, 10개 大學의 特殊collection 形成史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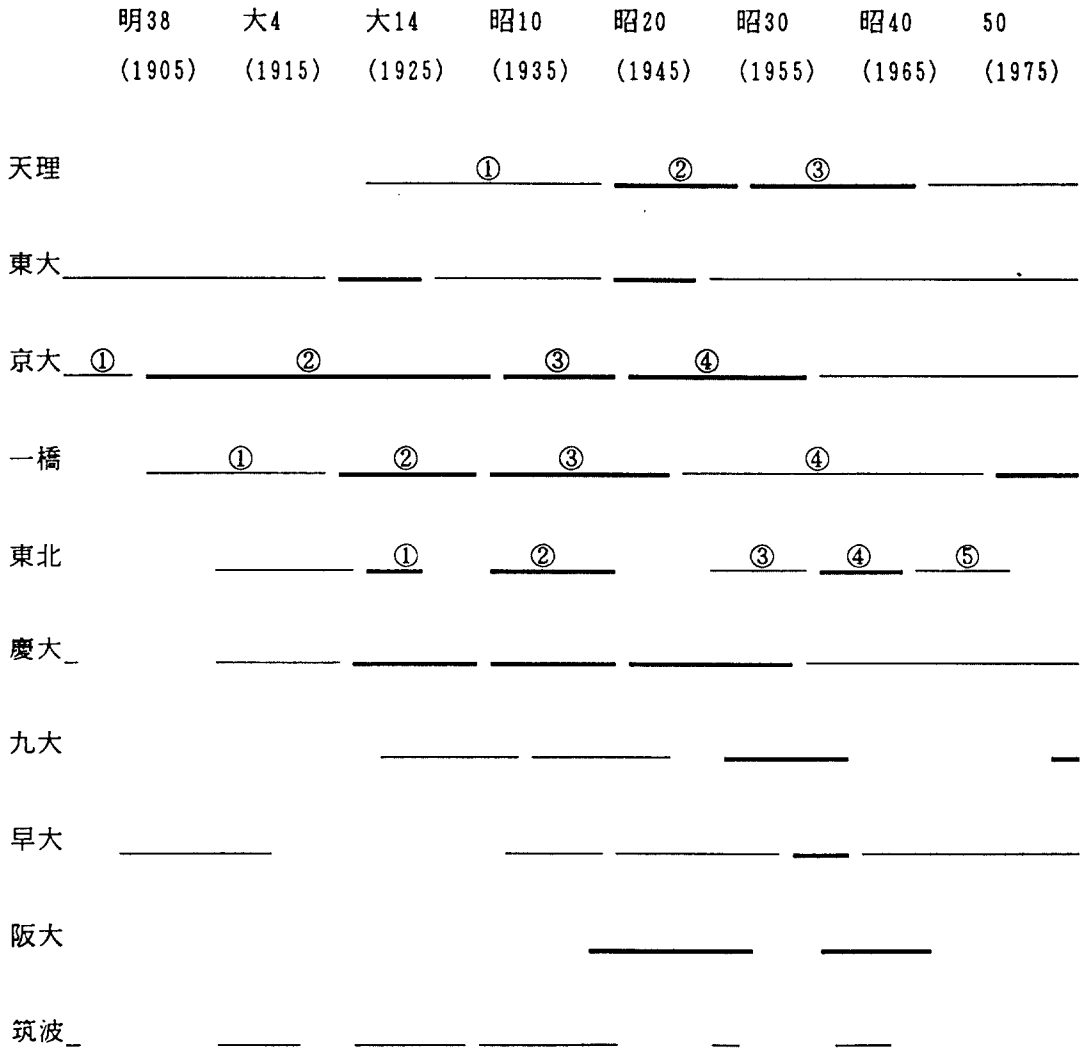


그림2. 各 大學의 特殊collection 入館時期

그림2. 에서는 各 大學에서의 特殊collection 入館을 ————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활발한 入館時期를 ————로 표시하고 있다.

上圖를 보면, 各 大學의 文庫形成의 歷史는 大學에 따라 다르며, 各 大學의 固有의 性格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은 本 論文에서 새로 調査한 文庫의 數를 표시한 것이다.

표5. 調査文庫數

	事前調査의 文庫數	새로 調査한 文庫數	大型collection
(1)天理大學	150	160	--
(2)東京大學	46	86	30
(3)京都大學	49	68	26
(4)一橋大學	41	59	7
(5)東北大學	35	46	16
(6)慶應義塾大學	25	39	--
(7)九州大學	23	39	19
(8)早稻田大學	20	38	--
(9)大阪大學	23	32	16
(10)つくば大學	6	28	7

本調査있어서는 7개 大學을 實地로 見學하였으며, 그 結果 特殊collection에는 몇 개의 特徵과 問題點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特殊collection의 管理運營上의 問題로서 次節에서 論하고자 한다.

4. 2 管理・運營上の 問題

먼저, 第1로 特殊collection의 性格의 問題로, 特殊collection은 크게 完結體와 增加體의 2가지 形態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特殊collection에는 많은 貴重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貴重書에는 國寶와 重要文化財등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大學圖書館은 貴重書의 基準을 獨自的으로 정하고 있지만 各大學마다 統一되어 있지 않으며, 特殊collection과 貴重書와의 範疇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음 第3의 問題로서, 文庫를 一括해서 管理할 것인가, 아니면 解體해서 一般圖書과 같이 배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天理大學과 東京大學은 一般書架에 같이 배열하고 있으며, 京都大學, 一橋大學, 早稻田大學은 比較的 一括處理를 하고 있다.

第4의 問題로서는, 特殊collection의 範疇의 問題로, 基準이 一律的이지 못하고, 어떤 것

을 特殊collection으로 할 것인가의 境界가 반드시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文書を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大學마다 一定하지 않다. 大學에 따라 文書を 特殊collection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文書を 特殊collection과는 별도로 다루는 곳도 있다.

第5의 問題로서는, 特殊collection 收集에 있어서 圖書館의 責任性의 問題이다. 特殊collection을

收藏하기 위해서는 大型의 購入資金이 必要하며, 收藏 空間이 必要하며, 整理 등의 人力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圖書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第6의 問題로는, 特殊collection收集에는 스페이스의 問題가 無視될 수가 없다. 또한, 特殊collection의 問題로서 保存과 利用의 問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第5章 結 論

以上, 序論을 제외한 3章에 걸쳐서 日本의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의 問題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章에서는,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에 관한 理論的 研究 및 實態調査와 分析의 結果 얻어진 內容을 整理하고,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特殊collection의 特徵과 問題點을 綜合적으로 考察 해 보고자 한다.

第1은, 第2章에서 論한 藏書構成論과 特殊collection과의 關係로서, 藏書構成論에 있어서 特殊collection이 어느 정도의 位置에 있는가에 대하여 明確하게 位置를 定하고 있는 既存의 文獻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本論에서는, 特殊collection의 再定義를 내리고, 藏書의 範圍에 있어서는 主題分野의 專門資料의 範疇로 정하고, 藏書의 質的인 問題에 대해서도 그 깊이의 정도에 따라 살펴본 結果, 特殊collection이 大學圖書館 藏書의 核으로서의 位置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第2로는, 日本의 大學圖書館에서는 收集方針을 成文化하는 것이 一般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特殊collection의 收集方針은 거의 全無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美國의 大學圖書館에서는 收集方針에 特殊collection의 項目을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大學에 따라서는 特殊collection의 收集方針이 成文化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藏書構成에 있어서 特殊collection의 位置를 明確하게 定하고, 收集方針을 成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問題는 專門主題分野에 대한 確定的 어려움과 大學圖書館의 收集에 있어서의 責任性의 問題가 介入이 되어 있어 事實의

로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第3으로는, 各 大學圖書館은 特殊collection을 專門分野의 藏書의 核으로서 지금까지 藏書構成에 努力을 거듭하여 왔으며, 自館의 자랑할 만한 藏書로서 位置를 정하여 紹介하여 왔다는 것이 事實에 대하여, 이번 調査를 통하여 더욱 잘 理解할 수 있었다. 日本의 大學圖書館에서도 各大學마다의 特色을 살려, 特定主題에 관한 資料를 網羅적으로 形成할 수 있는 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特殊collection은 많은 研究者와 學者 또는 收集愛好家 등의 網羅적이고 徹底한 收集에 의한 資料群으로서 一般의 自然成長的인 collection과는 각별히 다른 價値를 지닌 資料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各 大學의 특별한 研究의 發展을 支持해줄 뿐만이 아니라 國內외의 研究者에게는 研究의 根據를 마련해주는 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特殊collection의 維持, 發展을 위하여 各 大學圖書館의 努力과 더불어 學内外의 研究者와 學會의 努力, 국가의 財政的 支援 등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第4로는, 日本 大學圖書館의 特殊collection의 事前調査를 實施, 分析한 第3章의 內容을 綜合하여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事前調査의 結果로서,

- (1) 少數의 大學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特殊collection의 保有率이 극도로 높았다. 이러한 少數의 大學은 오랜 傳統과 歷史를 지니고 있으며, 當然히 藏書量도 많았다. 즉, 特殊 collection의 所在가 一定大學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위의 事實과 마찬가지로, 天理大學과 一橋大學이 藏書量과 比較하여 볼 때 特殊 collection의 數가 많았으며, 東北大學과 慶應義塾大學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大學들은 藏書構成에 있어서도 特殊collection의 發展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主題分析의 結果, 特殊collection의 主題는 人文科學·社會科學의 分野에 集中되어 있었다. 人文科學은 全體의 38%를 차지, 여기에 藝術을 합하면 42%에 달하며, 社會科學은 24%를 차지, 여기에 産業을 포함하면 약30%에 달하는 結果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人文科學·社會科學의 分野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은 特殊collection의 特徵 중 하나이다. 本論에서는 主題의 細部 分析에 의해, 어느 分野의 主題에 集中되어 있는지, 어떠한 文庫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 (4) 事前調査의 結果, 網羅的인 調査는 不可能하였지만 主要大學을 직접 調査해 봄으로써 特殊collection의 實態를 충분히 理解할 수 있었다.

第5로는, 大型collection의 概括的인 調査를 實施하였다. 大型collection은 既存의 特

殊collection과는 若干의 差異가 있으며, 그 相違점은 다음과 같다.

- (1) 國立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것.
- (2) 國家의 經濟政策과 關聯하며, 輸入圖書가 中心이다. 言語別로는 英語圖書가 過半數이상으로 가장 많다.
- (3) 既存의 文庫와 主題를 比較해 보면 社會科學의 分野가 많다.
- (4) collection의 형태는 오리지날 뿐아니라 리프린트版과 마이크로資料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相違점으로, 本論의 特殊collection의 調査에서는 大型collection을 除外시켰다.

第6으로는, 10個의 主要大學의 特殊collection에 대한 새로운 實態調査와 分析을 實施하였으며 그 結果 特殊collection의 問題點도 나타나고 있었다. 特殊collection의 問題點과 本實態調査의 結果를 綜合해 보면,

- (1) 各 大學圖書館에서의 特殊collection 形成의 歷史는 各 大學 固有의 것이다.
- (2) 特殊collection形成의 過程은 個人的 collection 收集能力과 collection 마켓(市場)에서의 流通과 關係하며, 收集에 있어서는 館長의 意志 등이 關係하여 왔다.
- (3) 完結本과 增加本の 2가지의 種類가 있다.
- (4) 特殊collection에는 많은 貴重書가 포함되어 있다. 그 結果, 特殊collection의 管理와는 달리 各 大學에서는 貴重書의 基準을 別途로 定하고 있다. 大量의 貴重書を 保有하고 있는 大學에서는 貴重書에 대한 嚴格한 基準을 가지고 있다.
- (5) 管理上의 問題로서는, 一括處理의 方法과 一般圖書와같이 混排하는 方法으로 나눌수 있다.
- (6) 特殊collection과 文書의 關係. 特殊collection 가운데는 文書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文書는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에 그 境界線이 明確하지가 않다.
- (7) 特殊collection의 收集에는 圖書館의 責任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8) 特殊collection의 收集에는 스페이스의 問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調査와 分析을 통하여, 日本의 大學圖書館들이 各各의 大學 나름대로의 特色을 잘 살려서, 特定主題에 관한 資料의 網羅的인 藏書 形成을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資料를 網羅的으로 收集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相互協力關係 또는 네트워크의 形成이 一層 推進되

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大學圖書館은 特色있는 藏書를 形成, 開發해 나가야 할 뿐만아니라, 그러한 藏書의 核이 될 수 있는 主題分野를 定하여 特殊collection을 形成하는 것이 大學圖書館의 重要な 役割이라고 할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點으로서, 時間的인 制約으로 인하여 새로운 調査와 分析이 主要大學의 代表적인 例로 限定되어, 日本의 전체 大學圖書館의 完全한 調査와 分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參考文獻

1. 堀内郁子. 大學圖書館藏書論. Library Science. No. 2, p. 13-23(1964)
2. 高橋重臣. 大學圖書館藏書論. 藝亭. No. 5, p. 4-11(1965)
3. 藤田善一. 大學圖書館의 收集方針. 現代의 圖書館. Vol. 16, No. 2, p. 65-72(1978)
4. 河井弘志. 大學圖書館 收集方針의 發展. 大學圖書館研究. No. 26, p. 29-48(1985)
5. 河井弘志. 大學圖書館의 收集方針의 現實問題. 大學의 圖書館. No. 153, p. 71-73(1986)
6. 河井弘志. 大學圖書館圖書選擇論의 成立1, 2. 圖書館學會年報. Vol. 31, 32, p. 65-72(1986)
7. 河井弘志. 藏書構成과 圖書選擇. 日本圖書館協會, 1992, 283p.
8. 國立國會圖書館編. 全國特殊collecton要覽 改訂版.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77, 217p.
9. 朝日新聞學藝部編. ふみくら-日本の 文庫案内. 東京, 出版牛士社, 1979, 290p.
10. 津金幹彦. 圖書館資料의 構築-個人文庫一覽.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85, 250p.
11. 細谷新治. 나의 體驗的 書誌學. 東京, 精興社, 1987, 285p.
12. 書誌研究懇話會編. 全國圖書館案内 上·下·補遺. 東京, 三日書店, 1992, 1992.
13. 石猿幹彦, 大成善盛, 殘野次郎. 大學圖書館의 管理와 運營.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2, 247p.
14. Young, Heartsill. ALA Glossa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245p.
15. Gardner, Richard K. Library Collection: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Y., McGraw-Hill, 1981. 354p.
16. Scham, A. M. Managing Special Collectotns. New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1987. 201p.

17. Elizabeth Futas. Library acquisition policies and procedures, Second Edition. Arisona, The oryx press, 1984. 579p.
18. A.L.A.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Collection Development Committee. Guidelines for collection developmen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9. 78p.
19. Wortman, William A. 藏書管理-背景과 原則. 松戶保子等譯. 東京, 勁草書房, 1994, 295p.
20. Ford, Stephen. 圖書館資料의 受入. 丸谷哈一, 高木由美子共譯. 東京, 勁草書房, 1984, 298p.
21. Hubbard, William J. 書庫의 管理. 丸谷哈一譯. 東京, 勁草書房, 1987, 153p.
22. Prytherch, Raymond John. Horrod's Librarians' Glossary. 8thed. Vermont, Gower Publishing Company, 1995. 629p.
23. 岩猿敏生. 大學圖書館. 東京, 雄山閣出版, 1978, 295p.
24. 高鳥正夫. 大學圖書館의 運營. 東京, 勁草書房, 1985, 193p.
25. 三浦逸雄, 根本章. 講座 圖書館의 理論과 實際 2. collection形成과 管理. 東京, 雄山閣出版, 1993, 272p.
26. 河井弘志. 美國에 있어서 圖書選擇論의 學說史的研究.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7, 483p.
27. 日本圖書館協會圖書館의 自由에 관한 調查委員會編. 收集方針과 圖書館의 自由.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9, 225p.
28. 高山正也編. 圖書館·情報센터의 經營. 東京, 勁草書房, 1994, 282p.
29. 日本學術振興會編. 全國大學圖書館要覽 1980년판.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980, 810p.
30. 日本圖書館協會編. 圖書館은 지금-白書·日本의 圖書館.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2, 192p.